



나에게 묻는다

김동기

소개글

들꽃따라 문학향기의 에세이 모음집

목차

1	아재와 방패연	5
2	고목위의 개미	8
3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12
4	서호에 취하고 서당에 반하다	16
5	윤동주의 고향 명동촌의 하늘을 보며	20
6	윤동주와 정지용 짝사랑에 빠지다	23
7	백두산기	26
8	호류지에 활짝 핀 금당벽화	30
9	이비야 온다	33
10	임시정부 발자취를 찾아서	36
11	루저녀 오호통재라!	39
12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땅집	42
13	동화 같은 세상	45
14	겸재 정선이 바라본 개화사	48
15	스승의 기도	51
16	윤수 좋은 날 / 김동기	54
17	독을 차고 - 김영랑	56

01

아재와 방패연

아재와 방패연

한국크리스천문학 43호(겨울)

눈발이 세차게 날리는 그해 겨울, 멀리서 수요 예배를 알리는 교회당의 쇠북(鍾)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빨갛게 잘 익은 사과 같은 해가 누엿누엿 안산으로 떨어진다. 추운 바깥 풍경과는 달리 사랑방 정지에서는 가마솥에 김이 모락모락 나며 소여물 쑤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머슴은 장작불의 따뜻한 온기로 긴 하품을 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다. 새벽부터 송아지와 함께 되새김질을 하던 ‘누렁이’가 벌써 배가 곱은 모양이다. ‘음매 음매’ ~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핑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 쇠죽을 달라는 눈치다. 그럴 때마다 군동댁 머슴 내외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가족들에게 먹이를 준다.

이태 전에 할머니께서 장에 나가 주먹만 한 집토끼 한 쌍을 사온 뒤로 그 놈들은 내 몫이 되어 버렸다. 사랑방 모퉁이에 사과 껌짝으로 집을 만들어 온갖 정성을 다하며 여태까지 기르고 있다. 추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를 몰고 들판에서 돌아올 때 토끼풀을 한 망태기 가득 뜯어와 그것으로 먹이를 하였는데 이제는 시래기나 고구마 줄기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해 뒀다. 한겨울을 대비할 수가 있다. 어찌나 먹는 모습이 귀엽고 예쁘던지 꼭 안아 주고 싶다. 하얀 목화송이처럼 보송보송하고 포근해 보이는 털이 더욱 탐스럽고 눈이 부시다.

겨울이 되면 동네 어른들이 부드럽고 고운 토끼털이나 족제비 털로 귀마개와 목도리를 만들어 자랑스럽게 걸고 다닌다. 이 녀석들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지켜 줄게.” 별걸고 커다란 눈이 나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놀란 토끼눈이 된다. 마치 아가의 선한 눈빛을 보는 것과 같이 예쁘고 사랑스럽다. 시나브로 정이 들어 가족이 다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장에 수컷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요즈음 다른 집에서도 한 마리씩 없어지곤 한다는 소문이 들린 이후다. 이따금 족제비가 토끼를 물어간 적은 있다. 혹시 주변에 나와 있지 않나 하고 외양간 쪽과 헛간의 짙벼늘 사이 그리고 뒤 안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점점 불안해지고 이상한 생각마저 든다. 그러던 찰라 군동 아집이 “도련님, 사랑채로 내려와요. 잔치가 벌어졌당께.”

마을 청년들이 가끔 꿩과 참새, 청둥오리를 사냥해 오면 우리 사랑채로 몰려와 온종일 시끌벅적대며 야단스럽게 먹어 치운다. 설마 하면서 달려갔지만 역시 예감이 빗나가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울며불며 마당 한 가운데서 뒹굴며 난리법석을 피웠다. 당황한 군동 아재는 “다시는 안 그러마, 다음 장날에 가서 꼭 사다 줄게.” 하며 달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도련님이 제일 좋아하는 연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화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하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럼 흥어딱지 말고 방패연을 맹글어 줘야 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며 나는 한발 물러 설 수밖에 없었다.

추수가 끝나면 농한기에 접어들지만 사랑채는 더욱 부산해진다. 쇠죽 쑤기,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마람 엮기, 장작 패기 등 궁둥이 뒤로 해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 움직인다. 이런 와중에 군동 아재는 집토끼를 잡아먹은 대가치고는 너무 큰 곤혹을 치른다. 방패연을 만들려면 대가 필요한데 왕대는 강진덕 대밭에도 있지만 시누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 이웃 동네로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사정사정해야 겨우 얻어 올 수 있다. 가늘고 긴 낭창낭창한 시누대를 낫으로 손질하고 세심하게 다듬어서 연살을 만들고 창호지를 덧붙여 방패연을 완성한다. 덤으로 홍어딱지까지 새끼를 쳤다.

“야호! 우리 아재 최고야.”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우리 집 ‘백구’도 꼬리를 치며 덩달아 신나게 날뛰다.

방울달린 털모자를 쓴 소꿉동무들이 동네 쉼터인 ‘우산각’ 근처 양지바른 곳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연을 날린다. 바람이 잠잠하면 보리밭을 가로질러 힘차게 반대편으로 달려야 연이 가라앉지 않고 다시 솟구쳐 바람을 타며 하늘 높이 올라간다. 눈이 녹은 질퍽한 보리밭을 달리다 보면 흙덩이가 고무신에 덕지덕지 엉겨 붙어 마치 묵직한 ‘설피’ 모양으로 되어 버린다. 아이들은 보통 꼬랑지가 긴 홍어딱지를 날리지만 내 것은 모두가 선망하는 방패연이다. 이제 천하를 호령할 수도 있다. 이런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제 연싸움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리라.

오늘은 누가 더 멀리, 높이 날리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연줄을 끊어 내어 상대방 연을 떨어뜨리는 싸움이다. 서로 이기기 위해서 열레를 당겼다 내주었다 하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기도 하며 기 싸움이 한창이다. 숨털 같은 눈발이 날리는 한적한 하늘에 전운이 흐르며 팽팽한 긴장감마저 돈다. 손등이 갈라질 정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불지만 육각형 열레를 수없이 흔들어 대는 손에는 땀이 찰 정도로 후끈거린다. 형들은 연살을 사금파리 가루에 풀을 매겨 살벌한 싸움을 하지만 우린 그러기에는 아직 순수한 면이 남아 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내 방패연이 웅웅거리는 왕벌마냥 날갯짓하듯 멋지게 날아오른다. 철새들의 군무 사이로 늙름하고 당당하게 비행하며 벌써 개신장군 행세를 한다. ‘아차’ 하는 순간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연이 곡예를 하며 한 바퀴 원을 그리더니 연살을 팽팽히 당긴다. 누군가 연줄을 아주 강하게 낚아채는 순간 내 연이 힘을 잃고 넘실넘실 흔들리며 춤을 추더니 저 넘어 팽나무 가지에 걸려 외롭게 팔랑거린다. 이런 낭패가 있다. 재빨리 간짓대를 가져와 이리저리 건드려보지만 이내 썩은 가지가 부러지며 추수가 끝난 텅 빈 논바닥으로 곤두박질친다. 허우대 종던 방패연이 고샅길에서 거인이 맥없이 자빠지듯이 그렇게 고꾸라지고 말았다. 약이 잔뜩 올라 얼굴이 벌게지며 붉으락푸르락하는 모습을 애써 감춘다.

방패연이 홍어딱지한테 지다니 납득이 되질 않는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내 방패연을 무력화시킨 건 다름 아닌 우리 집 군동 아재 아들이다. 그 자식은 명주실이 아닌 질긴 나일론실을 사용했던 것이다. 지난 장날 아버지가 사주었다고 자랑하더니……, 속았다는 생각에 갑자기 아재가 원망스럽고 미웠다.

“느그 아버지 오늘부터 해고야.

“당장 짐 싸서 우리 집에서 나가!”

이렇게 사랑채 쪽에 대고 마구 퍼부었다.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하더니 찾김에 소리만 질러대는 꼴이 딱 그 짝이다. 멀리서 은은히 들려오는 교회당의 종소리는 내 컷전을 맴돌고…….

안산 ‘녹두바우’의 인자한 얼굴이 이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2009.11.16.

02

고목위의개미

고목위의 개미

2010.01.08 09:28

고목위의 개미

서울교육 2009 겨울호(196호)

만산홍엽(滿山紅葉)의 계절, 보이는 것 모두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제법 한적한 가을 산을 터벅터벅 걸으며 생수를 과실주인양 음미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신다. 가슴 한편에 켜켜이 쌓여 꿈틀대는 일상과 번잡하고 감각적인 도시에서 벗어나 모처럼 친구들과 산행을 즐기고 있다. 우러러보면 나무 사이로 확 트인 하늘이 아득하고 넓어 끝이 보이지 않고, 굽어보면 깊숙한 골짜기마다 붉게 물들어 사람들 등산복에도 채색되어 비친다. 그동안의 삶의 무게를 다 벗어 던지기라도 하듯이 힘차게 두 팔을 들어 올려 보기도 하고 계곡 건너편으로 ‘야호, 야호’ 목청껏 소리쳐 훈탁한 가래를 지운 메아리를 만들어 보기도 한다.

울긋불긋 단풍나무 숲을 뒤로 하고 넓은 너럭바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님,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 주세요.” 이 녀석은 나를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꼭 아버님이라 호칭하고 있다.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며 자랑삼아 너스레 떠난다. 노총각이 애인이 생긴 모양이다.

늦은 저녁 선술집에서 미리 한 잔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만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이 그 녀석임에 틀림없다. 키가 어찌나 크던지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를 소개할 때 8척이니 9척이니 하는 그런 정도의 장신이다. 모처럼 정장 양복으로 갖추어 입은 모습이 썩 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아버님, 잘 지내셨죠?” 하고 등 뒤에서 덩석 껴안는다.

“이 녀석이!”

“아이 왜 그래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서로 안아 인사를 건넨다. 누군가에겐 이 광경이 흡사 고목나무 위의 매미쫄음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 왜 혼자니?”

“먼저 약속 하나 해 주셔야 돼요.”

“뭔데?”

“주례를 맡아 주세요.”

“미친 놈! 야! 이 나이에 무슨 주례니, 사회자라면 모를까.”

“거부하시면 저 결혼 안 할래요.”

“그야 네 맘대로 하렴” . 꺄꺄꺄..., 하하하...

“저...처음 뵙겠습니다.” 언제 왔는지 아리따운 아가씨가 곱게 차려 입은 투피스 차림으로 살포시 인사를 한다.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저희 주례는 고등학교 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어요. 얼마나 선생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은근히 질투가 다 날 지

경이에요. 형님 같고 아버님 같은 분이라고 항상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실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역시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정말 재미있고 정답게 느껴져서 제가 감히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을 선생님께서 맡아 주세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가 아닌가요. 제가 이제 불혹(不惑)인데 주례로 나서면 부모님이나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예의가 아니죠. 저보다 덕망이 있는 직장의 대표이사나 부모님과 잘 아시는 사회 저명인사들 중에서 선택하여 부탁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튼 이쯤 하세요.”

대충 얼버무리고 나서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옛 추억을 안주 삼아 목청을 높였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갈 때 목포에 태풍이 몰려와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부산 김해공항으로 밤새 이동한 이야기, 그마저도 우리 반이 대기 끝번이라 제일 늦게 탑승해 다른 반보다 4~5시간 제주도에 늦게 도착해서 점심을 굶은 이야기, 선생님 결혼식 때 처음으로 서울 촌놈이 광주항쟁의 근거지였던 충장로와 금남로 구경을 하고 친구들과 밤을 꼬박 새우며 놀았던 이야기……, 시간 간 줄 모르고 묵혀 두었던 지난 일들을 토해내느라 옆에 앉아 있는 여인을 목석으로 만들어 버렸다.

나는 제자들을 만날 때가 실로 행복하다. 내 머리에선 이미 까맣게 잊힌 일들을 아이들은 쌀독에서 콩을 쏙쏙 골라내듯이 다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의 입을 통하면 나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한 편의 리얼 다큐멘터리가 되어 발가벗겨지곤 한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

주위의 탁자가 한 자리씩 비워지고 사람들의 인기척도 점점 멀어져 밤이 깊었음을 알아차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텅 빈 주막 구석에 주인 할머니가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고, 벌어진 창문 틈새로 보름달만이 우리들의 달콤한 얘기를 들어주는 듯 정답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달이 오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술이 거나하게 취해 주례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도 못하고 서로 헤어졌다. 취중에 “아버님이 주례 안서시면 저 결혼 안 해요.” 하던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쟁쟁할 뿐이다.

화창한 날씨가 잔뜩 찌푸리더니 서너 하늘은 검붉게 물들어 있고 구름 사이로 빠끔히 보이던 해마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건들장마도 때가 지났는데 여우비가 오려나 보다. 빠리릭~, 빠리릭~. 전화벨이 울린다. “아버님, 아들이에요. 명동거리에서 총각 신분으로 마지막 데이트하고 쇼핑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내일 식당에서 뵈게요.” 하고 자기 말만하고 끊어 버린다. “이런 괘씸한 놈 봐라.”

예식장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예복으로 갈아입고 얼굴 단장도 좀 하고 최대한 젊게 보이려고 치장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오늘 주례 안 서죠?” 한다.

“주례는 무슨?”

“그 녀석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었겠지.”

졸업생들을 한꺼번에 만났다고 생각하니 괜히 설레고 내가 주인공인양 준비에 바쁘다. 서둘러서 강남에 있는 M호텔로 들어섰다. 역시 기대했던 만큼 제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선생님 안녕하셔요.” “저 혜실이에요.” “왜 제 결혼식에는 안 오셨어요? 서운해요……,” 한마디씩 하는 통에 정신이 없다. 이 녀석들을 물리치느라 진땀을 빼면서 신랑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한참 동안 처녀총각의 마지막 모습을 피사체에 담아내느라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 대고 있었다. 찰칵, 찰칵……

“어! 아버님!” 이 녀석이 나를 보더니 어린아이처럼 달려 나온다.

“그래, 멋지구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百年偕老)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함께 기념사진 찍어요.” 신랑 신부와 한 컷 담고 나오면서

“주례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니?”

“아버님! 주례 없어요.”

“아! 오늘 같은 날도 농담하니?”

“아버님이 아니면 저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통명스러운 말투다.

순간 머리를 둔탁한 방향으로 한 대 맞은 듯이 멍해지면서 천장이 노랗게 물들고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꿈인가 생시인가.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저 녀석 하던 말이 진심이었던 말인가. 그 녀석의 표정도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나의 심란한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르면서 등 뒤로 식은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후들후들 떨리고 있는 다리를 곧추세울 겨를도 없이 온몸에 힘이 빠져 얼굴은 창백해진다.

“여보, 어떻게 해봐요.” 나를 부추기며 집사람이 참견한다.

“당신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난 한 번도 해 본 경험이 없는데……,”

“저 애들 결혼식을 망칠 셈이에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다. 참 그렇지. 저 녀석들 오늘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지 않나. 그러나 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찌 한 단 말인가. 부모님과 함께 상의해 보자. “선생님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나였지만 지금만큼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에 줄곧 땀만 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변명할 틈도 없이 사무실 직원이 끼어든다. “시나리오대로 읽으면 돼요. 선생님이시니까 잘 하실 것 아니에요.” 갈수록 태산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온통 나의 과녁에 대고 화살을 명중시킨다. 이미 난 숨조차 쉴 수가 없다. 그래도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부모님에게 마지막 구원의 눈길을 보낸다. 결국 주례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의뢰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 땀 땀따단~♪ ~~~~~, 결혼 행진곡이 들린다. 신랑, 신부 입장 후에 주례 선생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온다.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결국 난 식당 밖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의 결혼식을 지켜봐야 했다. 정말 긴 하루였다.

신혼여행이 끝날 무렵 해명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 보았다. 더 이상 통화가 안 된다. 그 녀석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실망했을까?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님 같은 선생님이 이토록 중요한 생의 최고의 날을 하마터면 그르칠 뻔하였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 자괴감(自愧感)을 감출 수가 없고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그 녀석과의 키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말았다.

고목 위의 매미가 이제 개미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 2009.12.

03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2010.02.07 10:33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한국교원공제회 교육가족의 다락방

결혼 20주년이 되면 도혼식이라 한다. 질그릇 같은 투박한 삶을 살아온 부부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벌써 교사생활 20년을 맞이하고 두 해 후면 지천명에 접어들다. 계절로 말하면 늦가을에 접어드는 인생인 셈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우리의 교육은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의 삶속에서 변화를 거듭해 왔는가. 세월이 거침없이 흐르는 요즘 새삼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새파랗게 젊은 초년시절 교무수첩을 왼손에 회초리를 오른손에 들고 교실을 시작으로 아이들을 주눅 들게 하면서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방방뜨던 그 혈기는 다 어디로 갔는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마다 학급을 찾아가 반 아이들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상담하면서 도시락을 함께 먹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가. 아이들은 서로 앞 다투어 담탱이의 도시락을 독점하려고 야단법석이다. 그렇게 교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황후의 밥보다 더 맛있다는 점심을 먹곤 했다.

주말이면 교실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떡볶이, 튀김, 감칠맛 나는 따끈한 오뎅국물 등 먹거리를 한 아름 싸들고 교실을 방문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선생님 최고야!”, “너무 멋져요!” 하며 아양스럽게 너스레를 떠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아이들과 함께 고궁을 관람하고 인근 남산을 오르며 손을 잡고 당기고 밀어주고 하면서 형처럼 오빠처럼 행세했던 시절이 그립다. 지금은 방과 후 교육이니 야간 자율학습이니 해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만 그 때의 아련한 추억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보내온 제자들이 몇 있다.

“선생님과 보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더 많이 아쉬워요.”

“선생님 덕분에 행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가끔은 하늘을 보면서 선생님 얼굴을 한번 그려 보아요.”

“제가 선생님이 된다면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자상한 멘토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편지는커녕 되새기고 싶은 문자메시지 하나 없을 정도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시대가 변하여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제 또래의 이성끼리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교내에서도 스스럼없이 스킨십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언젠가 나를 잘 따르며 좋아하던 아이가 가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신림동 카페와 다방을 전전궁궁하며 며칠씩 찾아 다녔다. 밤마다 친구들에게 수수문을 하여 제보를 받고 행적을 따라 다니며 억장이 무너지도록 아파하며 찾아다니던 기억이 있다. 경찰도 아닌 것이, 부모도 아닌 것이 내가 꼭 해야 할 일처럼 거의 일주일의 시간을 찾아 헤맸다. 친구들 말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공부도 싫고, 가족에게도 버림 받았다고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며 어디론가 떠나버리겠다고 했다고 한다. 사연이 복잡한 아이지만 반드시 찾아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이슬을 맞아 가며 신림동을 이 잡듯이 뒤졌는데 결국 그렇게 보내야 했다.

언제부터인가 책상 위에 프리지어와 함께 안개꽃이 놓이기 시작했다. 항상 나보다 먼저 교무실에 들어와 아무도 모르게 화병의 물을 갈고 꽃이 시들지 않게 관리하는 흔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얼마나 향기가 은은하게 오랫동안 풍기는지 교무실은 온통 꽃향기로 가득 차곤 했다.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나 보다. 역시나 그녀석이 돌아왔던 것이다. 눈동자가 말갭게 빛나며 수줍음을 잘 타는 그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었다. 나와 마주치자 순간 살짝 얼굴을 붉힌다. 지금도 샛노란 꽃망울의 프리지어를 보면 항상 그 아이가 떠오르며 은은하고 감미롭게 피어나는 그 향기를 통해 어린 시절의 풋사랑이 클로즈업 된다.

나도 중 3때 국사선생님을 무척 좋아한 적이 있다. 미와 실력을 모두 갖춘 똑 부러진 우리학교 최고의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다.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 인사부터 하려고 경쟁한다. 그 시간만 되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를 바꾸고 칠판을 깨끗하게 지워 놓고 주변의 휴지도 줍는다. 예습과 복습도 철저하게 해서 미리 질문에 대비를 한다. 어쩌다 칭찬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꼭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선생님은 월출산 자락의 시골에 있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셨는데 주말이면 광주로 올라가셔야 한다. 근데 버스 시간을 놓치면 꼭 내 자전거를 타고 30분 정도를 씹씹 달려 읍내로 나가야 한다. 오늘도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신작로를 달린다. 그 때는 도로 포장되지 않는 울퉁불퉁한 길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튕 튕 튀며 흔들리기가 심상이다. 그때마다 등 뒤에서 꼭 내 허리를 감싸 쥐며 나를 끌어 앉는다. 야릇하고 은은한 향수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 코끝을 스친다. 급기야 가슴이 쿵당쿵당 뛰며 자전거도 함께 쿵쿵거린다. 무섭다고 살살 좀 가라고 자주 소리치시지만 난 그 말씀이 들릴 리가 없다. 더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누렇게 익은 황금빛 들판을 가로질러 파란 가을하늘로 꿈같은 길을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저만치 외로운 허수아비가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자주 버스를 놓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다가온다. 그 때 선생님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향수냄새가 바로 프리지어 향이 아닌가 싶다. 그로인해 순정의 꽃 프리지어는 내 마음의 꽃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해 하얀 눈이 내리는 날 갑자기 결혼하시고 말았다. 세상은 온통 함박눈이 날리는데 내 마음은 안개비에 축축하게 젖어 들고 있었다. 어찌나 허전하고 슬프던지 그렇게 사랑을 키워 가고 아픔을 견디어 내고 있었다. 지금도 스승의 날이 되면 가끔 찾아가 뵈는다.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아직도 따뜻하게 전해지는 눈빛과 고운 목소리는 여전하시다.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이모님 같은 전형적인 아줌마의 모습이지만 나에게는 추억과 사랑을 싣트게 해주신 영원한 스승님이시다. 누구에게나 꿈을 심어준 선생님이 있었지만 중학교 때 항상 내 자전거를 애용해 준 예쁜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요즘 교육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관계 더 나아가 강사와 수험생의 관계로 통한다. 우리 모두는 스승이 아닌 강사로 추락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향하는 아이들에게 따끔한 회초리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적인 사랑도 사라지고 있다. 인성보다 지식, 꿈보다 대학, 잠재력보다 눈앞의 성적이 학생들에게 중요할 뿐이다. 오직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성적 올리기엔 급급할 따름이다. 모든 것을 수능 점수와 내신 성적 그리고 대학합격에 올인하는 전인교육(?)이 학교의 현실이다. 시험 잘 보는 학생만 인재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창의적인 인간교육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우리는 잘 세공된 학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된 원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나마 “동기쌤~~~” 하고 불러주는 학생과 가끔 찾아주는 졸업생이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되고 보람을 느낀다. 잠시나마 아직도 제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착각하곤 한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고목은 나목이 되어 연두색 빛의 새싹이 돌아날 때쯤이 되면 나에게는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온다. 서로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모습과 그저 발랄하고 거리낌 없는 행동을 통해 세대 차이를 느낀다. 군대에서 신병 전입신고 받듯 질서 정연하고 경건하게 입학식을 치루고 나서 우리의 만남은 시작된다.

신록이 우거져 푸르다 못해 눈이 시릴 정도로 진한 녹음이 교정을 휘감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강렬한 땡벌이 내릴 때 아이들은 뜨거운 가마솥에 살짝 델친 우거져 모양 축 늘어져 헉헉대며 등줄기에 땀을 내놓는다. 이때는 공부는 뒷전이고 에어컨 바람에 몸을 맡긴 채 그저 매미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렇게 꿈속에서 몽상만 즐기는 녀석들이 더러 있다.

교정의 담쟁이가 거미줄을 치듯 벽을 올라타 본관건물을 붉게 물들이면 학교는 ‘청라제’로 온통 시끌벅적 야단스럽고 다시 아이들은 생기가 돌며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아이들도 많이 성장하여 황금들판에서 농부가 추수를 하듯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이삭줍기에 열을 올린다. 이때가 가장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인가 싶고 정이 많이 든다. 주변의 풍경은 온통 가을을 재촉하며 색소에 담갔다가 바로 건져 올린 비단처럼 청록의 구분 없이 전부 홍으로 물들인다.

찬바람이 뽕뽕 창문을 흔들며 바람 스치는 소리가 거세지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움짱달짝 하지 않고 공부만 한다. 바람을 붙잡고 지는 꽃을 보며 마음을 다 잡아 영글지 못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지만 시간은 쉬 내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 날 훌쩍 학교를 떠나버린다.

이렇듯 3년을 주기로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어느덧 묵은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한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자연의 섭리처럼 그 시간의 궤적을 따라가듯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과 헤어지지만 난 아이들을 결코 보내지 않았다.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이 생각난다. 보다 큰 만남을 위해 냇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강으로 보내듯이 그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 준다.

〈2010. 1. 25. 한국교원공제회 교육가족의 다락방〉

04

서호에 취하고 서당에 반하다

서호에 취하고 서당에 반하다

2010.01.08 09:34

서호에 취하고 서당에 반하다

국어교육 2010년 1,2월호(91호)

“항주에 서호가 없었다면 항주를 갈 이유가 없다”

신종플루의 위험이 도사리는 초여름 상하이(上海)를 거쳐 항저우(杭州)의 서호(西湖)와 서당(西塘)을 찾았다. 서호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며 시커먼 먹구름이 태양을 집어 삼키더니 콩알만 한 우박비가 굉음을 내며 퍼붓는다. 한참동안 버스 차창을 향해 불나방이 가로등에 돌진하듯 은구슬 파편을 만들며 창문을 깨트릴 기세로 덤빈다. 순간 아름다운 호수 모습이 짙은 물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서호의 미인 서시(西施)의 매력적인 모습을 쉽게 보여주기 싫어 하늘이 시샘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서자호(西子湖)의 멋진 풍광을 보여주기 위해 북과 팽과리를 치며 환영하듯 나를 반기는 것일까? 한바탕 내리던 우박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고 먹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빼꼼히 얼굴을 내민다. 혹시 서호를 보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과 긴장이 일시에 해소되며 얼어붙었던 마음도 서서히 봄 햇살에 눈 녹듯 풀어진다.

중국의 1위안 지폐 뒷면에 서호가 배경으로 그려져 있다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서호를 유람하며 하기 위해 배를 탔다. 유람선은 2층으로 이루어졌고 지붕은 황색의 기와를 올려 마치 집 한 채가 떠다니는 모습이다. 유람선에서 바라본 서호 주변의 모습은 절경 그대로였다. 버드나무와 정자, 누각과 사원, 탑 등이 주위의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가 생각나 한 수 읊어 본다.

“清風徐來, 水波不興....., 白露橫江, 水光接天”

“맑은 바람은 서서히 불어오고 물결은 잔잔한데.....,

흰 이슬은 강을 건너고 물빛은 하늘에 맞닿아 아득히 멀구나.”

서호의 분위기와 정말 기막히게 어울리는 시구 아닌가?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에 젖어 사람마다 흠뻑 취하고 나도 한잔 기울이니 흥이 절로 나며 소동파의 풍류를 내가 즐기는 것 같다. 맑은편에서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연인이 작은 쪽배를 타고 바람과 물결에 몸을 의지한 채 유유히 노래를 부르며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 얼마나 부럽고 질투 나는 장면인가? 저 연인들은 서호를 다 품은 듯한 기분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서호 11경이라 부르고 싶다.

멀리 보이는 성황각(城隍閣)을 뒤로 하고 소동파 시인의 낭만과 서민들의 애환이 스며있는 동파육(東坡肉) 요리를 맛보기로 한다. 서호를 관광한 후에는 꼭 항주 명물요리인 거지닭(叫花雞)과 함께 동파육을 먹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우리의 삼겹살처럼 비계와 살덩이가 섞인 형태의 네모난 두터운 고기를 소흥주를 넣은 간장에 조린 것이라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아삭한 청경채에 싸서 먹는 맛은 입에 넣으면 바로 녹을 정도로 조금 부드럽고 껍질은 쫄깃쫄깃하지만 역시 우리의 고소한 삼겹살이나 육질이 부드럽고 쫄

득쫘득한 족발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돼지 비계의 맛을 알면 비로소 중국의 맛을 아는 것” 이라 하지만 명성에 비해 조금은 실망스럽다.

아쉬운 마음에 호수의 바람을 맞으며 찻방에 앉아 짙은 향과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는 용정차(龍井茶)를 찾아 음미하니 마치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되어 서호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구나.

“호의(縞衣) 현상(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西湖)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송강(松江)은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옛날 송나라 때 서호처사(西湖處士)라고 불리던 임포(林逋)가 서호에서 매화와 학과 더불어 노닐었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을 임포에 비유하고 있지만 서호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 송강은 나와 비길 것이 못되는 것 같다. 낮보다 아름답다는 서호의 야경, 달빛에 저린 환상적인 풍광을 보지 못함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일정상 어찌할 수 없어 훗날을 기약하기로 하자.

살아 숨 쉬는 수향마을 서당에 반하다

서당은 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 지금까지 예전 모습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쪽배를 타고 마을을 종횡으로 가로지르며 수로를 따라 좌우로 아름다운 옛 고을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노를 젓고 있노라면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는 어떤 어옹도 부럽지가 않는다.

한 폭의 수묵담채화 같은 수변마을 분위기가 내 마음을 한순간에 쏙 빼앗아 버린다. 집 앞 돌계단에서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는 화가들, 흥등과 창살문 드러난 즐비한 반점과 객잔의 가옥들, 예술품 같은 아치형 다리위에서 사진 찍기에 정신없는 관광객들, 선상의 카페 등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정말 평화롭고 낭만적인 수향의 모습이다. 이처럼 그림 같은 수로를 따라 세워진 이채로운 집들과 원시적인 건축물은 중국 역사문화의 천년고진임에 틀림없다.

관광객들이 가장 북적대는 곳으로 다가섰다. ‘가마우지’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중이다. 까만 잿빛의 목이 긴 오리처럼 생긴 가마우지가 목 아래 부분이 끈으로 묶여 있는 채로 쪽배위로 고기를 잡아오면 어부가 목에 걸려 있는 물고기를 꺼내고 있었다. 이것은 이기적이며 잔인한 낚시 방법이어서 중국 당국에서 금지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관광수입과 생계를 위해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고 하니 씁쓸하기 짝이 없다.

잠시 여유를 가지며 차 한 잔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호객행위가 벌어진다. 취두부(臭豆腐)를 먹어 보라고 자꾸 권해서 한 입 먹다가 코끝을 찌르는 격한 향을 내는 냄새 때문에 구토할 뻔 했다. 어찌나 역하고 쉼은 냄새가 나는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이 제껏 먹어보지 못한 독특한 음식인 것 같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웃으며 코를 싸쥐고 뛰어간다. 현지인들에게는 취두부가 한번 맛들이면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발효음식이며 그것을 즐겨 먹는다고 한다. 예전에 지인이 알싸하게 톡 쏘는 맛과 독특한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삭인 홍어를 먹지 못하고 코를 막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린 일이 생각나 빙그레 미소를 머금는다. 그 심정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

발길을 돌려 서당의 또 다른 매력인 수많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중국의 옛 정취가 느껴지는 오래된 집들과 현지인들의 생활모습이 그대로 전해지는 끝없이 늘어선 골목길의 풍경이 다가온다. 카메라 렌즈를 어디에 뒤편할 지 무엇부터 담아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볼거리가 많다. 좁은 길의 양쪽에 늘어서 있는 다양한 상점들이 올망졸망 줄지어 있고 양증맞은 관광 상품과 다양한 만물상의 모습들

을 대하니 꼭 동화나라에 들어온 기분이다.

마을 내부의 풍경은 꼭 우리의 70년대 시골 장터와 비슷한 모습이다. 반문명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이다. 인정과 애환이 스며있는 현지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흔적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 준다.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시안이나 허난을 찾고 현대를 보려면 상해를 권하고 싶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차분하게 웰빙 여행을 하고 싶다면 영화 미션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 3)과 드라마 카인(Cain)과 아벨(Abel)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서당의 독특한 분위기와 서정을 느껴야 할 것이다.

2009.12.15

05

윤동주의 고향 명동촌의 하늘을 보며

윤동주의 고향 명동촌의 하늘을 보며

2011.10.06 10:29

별에게 길을 묻다

윤동주의 고향 명동촌의 하늘을 보며

함께여는 국어교육 (2011 통권102호)

김동기

명동촌의 하늘은 참으로 곱고 주변 경치는 한국의 어느 농촌의 풍경과도 다르지 않다. 노랗게 물든 콩밭과 가을햇살에 고개 숙인 해바라기와 산들거리는 바람에 나풀나풀 춤을 추는 코스모스가 그렇다.

윤동주 생가입구에 들어서자 오른쪽으로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교회가 허름하게 서있고 장대처럼 높이 솟아있는 가느다란 십자가가 바람에 흔들리며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 지금 교회당 꼭대기 / 십자가에 걸리였습니다 / 침탑이 저렇게도 높는데 /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보니 높아서가 아니라 가늘고 긴 십자가여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는 명동역사전시관으로 저항시인 윤동주와 반일 민족 독립운동의 선구자 규암 김약연선생의 자료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들은 빛바랜 흑백사진 사본을 전시해 놓아 볼품도 없고 사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윤동주 문학관은 언제쯤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 있을까?

교회 아래로는 생가가 자리하고 있는데 ‘윤동주고향집’이라는 나무 팻말 뒤로 고즈넉한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가을 띄약별을 견디고 있었다. 잠시 고개를 숙이며 때늦은 조문이나마 내려놓는다. 이곳은 1900년경에 조부 윤하현 선생이 지은 집으로 공간이 달린 조선족 전통구조로 된 가옥이다. 1981년에 허물어졌던 집을 1994년에 역사적 유물로서의 가치와 관광차원에서 다시 복원하였다고 한다.

마당 앞쪽에는 넓은 들판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다. 윤동주가 유년기에 쓰던 방과 방학 때 귀향하여 시를 쓰던 방이 그대로 재현되어 그의 체취와 흔이 서려 있는 듯하다. 울타리도 없는 생가 흙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다시 한 번 윤동주의 시편이 떠오른다. “내 이름자 묻힌 언덕위에도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거외다.” (별 헤는 밤) 초라한 무덤도 아닌 생가 마당이 잡초로 우거져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왼쪽 별채 측면 벽에는 최초의 명동 소학교라고 쓰인 칠판이 걸려 있다. 3학년 1반 청소당번 문익환, 지각생 윤동주, 떠드는 학생 송몽규가 나란히 적혀 있어 이들이 소학교 시절 급우였음을 알려 준다. 숨바꼭질 하던 이들이 뒤안 어디에선가 불쑥 뛰어나올 것만 같다. 이들 중 고종 사촌인 송몽규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윤동주와 며칠 사이를 두고 옥사하였으며 고향에 나란히 묘비가 세워졌다. 평생을 함께 한 영원한 죽마고우(竹馬故友)인 것이다. 쓸쓸함과 허전함이 묻어나는 빈집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 고요하기만 하다.

오른쪽 뒤편길로 덩그러니 박힌 우물을 찾았다. 원래는 사각형의 나무 목판이었다는데 허물어져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돌과 시멘트 구조물로 바뀌어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우물 속을 응시하며 두레박을 던져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하는데 덮개가 닫혀 있어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다. “외판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 우물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화상)의 시구처럼 명동촌의 가을하늘과 바람과 구름을 우물 속을 통해 그려보고 싶었는데 아쉬운 순간이다. 다만 우물 주위로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형형색색 오색기를 흔들고 하늘하늘 춤을 추며 방문객을 반기는 듯한 모습에 위안을 삼을 뿐이다. “옛 소녀가 못견디게 그리워 /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코스

모스)

고향집은 윤동주가 1917년 12월 30일 태어나서 1932년 용정은진중학교에 입학하여 용정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성장했던 곳이다. 그는 유년기와 소년기를 바로 이곳에서 지냈으며 지금은 교외의 동산 언덕에 묻혀 고이 잠들고 있다. 윤동주가 노래한 하늘과 바람과 별의 배경이 바로 명동촌의 자연이며 그의 시심과 사상이 우러나온 곳이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 소학교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별 헤는 밤)을 떠올린다.

윤동주는 이 마당 양지마른 곳에서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코흘리개 동무들과 둘러앉아 소꿉장난을 하였을 것이고, 헌 짚신 짝을 끌며 골목을 싸돌아다니며 신나게 뛰어놀았을 것이다. 그가 어릴 적에 쓴 습작들은 문학사에 찬연히 빛나는 시가 되었고 그의 청년 시절의 시는 곧 그의 영원한 인생이 되었다. 단 한 여자도 사랑해 본 일이 없었던 그가 이제 거꾸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 짧은 생을 마감했던 명동촌의 청년 윤동주는 이제 보석처럼 빛나는 불멸의 시인으로 한국문학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 김동기, 한서고 국어교사

06

윤동주와 정지용 짝사랑에 빠지다

윤동주와 정지용 짝사랑에 빠지다

2010.02.27 09:29

윤동주와 정지용 짝사랑에 빠지다

강서문단 제5호(2010)

마치 교토(京都) 땅에서 윤동주와 정지용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어느새 버스는 도시샤(同志社)대학 서문 앞에 멈추었다.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수위실에서 캠퍼스 안내도와 시비 소책자를 받고 동주형이 매일 거닐었을 길을 따라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하리스 이화관 교정으로 향했다. 고풍스런 분위기의 붉은색 벽돌로 이루어진 삼각형 건물의 예배당을 지나 도시샤대학 100주년 기념비 건너편에 다정하게 나란히 마주하고 있는 시비를 보는 순간 남다른 감회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다. 차가운 이국땅에서 돌이 된 채로 이렇게 만나다니, 또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제 돌이 되어 밤새 이야기를 하며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들의 시는 바람을 타고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먼저 무궁화나무 옆에 있는 저항시인 윤동주 시비 앞에서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면서 이른 죽음에 대한 의구심을 떠올린다. 그리고 옆으로 몇 발자국 옮겨 수양버들사이로 향수의 시인 정지용 시비와 조우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두 시인은 똑같이 고향을 떠나 이국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1945년)하고 정지용은 월북하여 평양 교도소에서 미국의 폭격에 폭사(1950년, 또는 행방불명)한다. 이들은 또 도시샤대학 영문과 선배사이이다. 정지용이 19년 먼저 입학하여 6년 동안의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바다’, ‘압천’ 등 많은 작품 남긴다.

그러나 시비는 공교롭게도 후배가 먼저 빛을 보았다. 윤동주는 도시샤 교우회 코리아 클럽 주도로 “과거의 역사를 잊을 수는 없다고 해도 잘못을 용서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세워졌다. 그로부터 10년 후 정지용 시비는 충북 옥천문화원 주도로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 “일본에서도 시인에 대한 시문학 정신을 인정받은 데다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일본 땅 도시샤대학에서 두 유학생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서시’와 ‘압천’이 한글로 새겨져 당당하게 빛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1943년 윤동주는 조선어로 시를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는데 지금은 그 이유가 무색하게 되었다. 한글로 새겨진 시비가 일본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있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일인가? 후에 정지용은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을 쓰면서 윤동주의 정신적인 승리가 되었다.

시비 바로 앞에는 퇴색한 예배당이 우뚝 서 있다. 분명 윤동주는 이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참회를 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살자고 기도했을 것이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 잡았을 것이다. 또한 고통스런 현실에서 자신의 진실한 삶을 꿈꾸며 자기성찰을 수없이 맹세하고 외쳤을 것이다. 이런 청년 윤동주의 모습을 예배당 옆에 있는 거대한 녹나무 고목이 항상 지켜보고 위로를 해주었을 게다. 여름에는 의자에 앉아 쉬어가라고 긴 그늘을 내어 주고, 가을에는 외로운 마음을 달래 주기 위해 선혈처럼 붉은 단풍을 떨구며 친구가 되고자 했을 것이다.

이제 그 무명시인이 한국 문학사의 큰 별이 되어 그 고목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끼 낀 고목도 윤동주의 순결하고 곧은 지사적 기개를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형처럼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어루만져주고 감싸 주었을 것이다. 특히 신록이 무성하여 녹음이 짙어질수록 호형호제(呼兄呼弟)하며 더욱 정을 돈독히 쌓았겠지. 그래서 65년이 지난 뒤에도 이렇게 한시도 서

로를 떠나지 않고 일제 강점기의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윤동주 시는 일본 고등학교 ‘신편 현대문’이라는 교과서에 이바라키 노리코의 해설로 실려 있다. 이제 그는 조선어를 사용한 일본의 죄인이 아니라 모국어를 지킨 영웅으로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북한도에서도 윤동주는 길이길이 하늘의 별이 되어 세상에 빛을 주고 어둠을 밝히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정지용은 무지개를 형상화한 반원형의 화강암 시비에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24년 유학시절에 쓴 ‘압천’ 이 한글로 새겨져 있다. 압천은 도시사대학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교토를 가로질러 흐르는 가모가와 강을 말한다. 지금은 물도 많이 흐르지 않고 모래와 잡초를 드러낸 채 새들만이 지저귀며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서울의 청계천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봄에는 풀꽃과 만개한 벚꽃이 화려하게 흩날려 강변을 수놓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다고 한다. 정지용도 유학시절 다카하라의 하숙집과 학교를 오가며 강변에서 시심을 키우며 친구들과 어울렸을 것이다. 그리고 압천의 일몰을 보면서 바다 건너 조국을 생각하며 외로움과 절절한 그리움을 느꼈을 것이다.

鴨川 十里ノ벌에

해는 저물어.....해는 저물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목이 자졌다.....여울 물소리(이하생략)

정지용은 실제 윤동주를 만나지는 못했다. 윤동주는 정지용시인을 흠모하였으며 <정지용 시집>을 붉은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작품 밑에는 스스로 걸작(傑作)이라고 써놓았다고 한다. 석양을 바라보며 옥천 고향에서 나라를 잃은 설움과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 떠올리며 흘린 눈물이 압천 한쪽에 또 하나의 소(沼)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현대문학사를 대표하는 두시인과 오상순, 김말봉 등의 문인들을 길러낸 도시사대학이 왠지 무척 커 보인다.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정이 들어 가이드의 채근하는 시간이 못내 아쉽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겨울의 차가운 날씨에도 바람은 훈훈하게 불어와 언 가슴을 녹여주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반가워 손을 흔들어 보인다. 양상한 가지 끝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무척 정답게 들리고 나의 웃자락을 스치며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품안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다. 두 시인이 거닐었을 흔적을 따라 교정을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아쉬운 작별을 고하듯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시비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고목에게 입맞춤을 해본다.

정문의 수위 아저씨도 내 마음을 아는지 미소를 지어 보내며 무어라고 중얼댄다.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윤동주의 후예들이여!

2010.1.27. 오사카

07

백두산기

가깝고도 먼 백두의 신비

문학서울 제15호

김동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태풍 '꿀랍(KULAP)'을 등지고 연길공항에 도착하여 신산 백두산을 향하여 이도백하(二道白河)로 가는 버스로 옮겨 탔다. 일기예보와는 달리 하늘은 청명하며 차창 밖으로는 옥수수 밭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 어른 키보다 더 큰 옥수수대들이 연녹색의 파초 같은 잎들을 서걱거리며 무르익고 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 밭이 실로 엄청나게 펼쳐져, 달리는 버스가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저 멀리 백운봉과 천문봉이 햇살을 받아 어렴풋이 눈에 들어오고 백두산 토종이라며 '피나무꿀'을 파는 양봉업자들이 곳곳에 늘어서 손짓을 한다. 1박 2일 팀이 다녀갔으며 팀원들의 인증샷까지 걸어놓고 옷을 붙잡는다. 한 수퇘 먹어보니 꼭 아카시아꿀 맛이다. 일행 중 한 명이 선뜻 꿀 한 병 사들고 다시 한참을 달리니 하늘을 향해 쪽쪽 뺀, 줄기가 붉은 백두산 미인송이 제일 먼저 반긴다. 이 소나무는 '송풍라월' (松風羅月)이라 불리며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송풍의 피는 미인송의 몸이 되고, 푸른 잎은 사랑이 되었다."는 선남선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때문인지 백두산 자락의 소나무들은 유난히 붉은 줄기를 하고 하늘 높이 뻗어 있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북파(北坡)산문을 거쳐 본격적으로 천문봉으로 오르는 전용버스와 지프를 번갈아 타고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6인승 지프는 산허리를 돌고 돌아 정상까지 지그재그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쉬지 않고 달린다. 천문봉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차가 달린다. 지리산 노고단 입구까지 버스가 오르듯이 말이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눈앞에 벌려있고 저 멀리 드넓게 펼쳐진 누런 만주 벌판이 더욱 풍요롭다. 좌우로는 천 길 낭떠러지, 안전벨트 하나 없이 의자에 매달려 이리저리 쏠리며 옆 사람의 팔짱에만 의지한 채 몸을 맡겨야 한다. 카레이싱을 벌이는 듯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여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곡예운전을 자랑삼는 중국인 기사에게 '안전운전 부탁합니다.'란 볼멘소리도 다 소용없는 노릇이다. 한편으로는 좌우의 풍경에 사로잡혀 '델마와 루이스'의 영화 속 장면인 그랜드 캐니언을 시원스럽게 달리는 상상도 해보며 그 속도감과 스릴에 취해 마치 놀이공원에서 청룡열차를 타는 듯 그저 환호성을 지르고 말았다.

어느덧 악화림대, 수피가 하얀 자작나무 군락지다. 흰 두루마기 걸치고 우람하게 서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다. 더욱이 눈이 오면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만년설의 자태를 뽐낼 것이다. 이곳을 지나니 나무의 수목한계선인 고산지대에 들어선다. 들꽃과 낮은 풀 외에 수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자세히 내려다보니 자잘한 풀꽃만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마치 '드라이 플라워'를 내던져 수놓은 것처럼 한 폭의 수틀 속에서 누군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에델바이스였다. 이미 꽃을 떨군 채 몸을 웅크리며,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대는 산객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수없이 매연을 내뿜으며 달리는 지프의 행렬에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브레이크 밝은 소음에 시달려 지쳐있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아주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다. 왠지 안쓰러운 마음에 백두산 탐방의 즐거움이 금세 사라졌다. 한라산 백록담까지 차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몸살 짓 아닌가?

좌우의 차창 밖으로 용암이 만들어낸 협곡의 웅장함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 벌써 천문봉 주차장에 도착했다. 기상대가 한쪽으로 비껴서서 우리를 노려보며 천지 조망은 내손에 달렸다고 큰소리를 친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지를 향해 뒷사람의 공무니만 쳐다보며 가파른 계단을 따라 줄지어 있다. 과연 저편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천지의 비경을 보고 있는 것일까? 하늘을 우러러 보니 변화무쌍한 구름과 안개가 한순간에 천지를 휘감으며 나를 희롱하는 듯 했다. 천지에 10번 오르면 그 모습을 두세 번 볼까 말까해서 천운에 맡겨야 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생각난다. "천지를 보려면 3대가 공을 들이고 덕을 쌓아야 한다."는데 과연 그러했는지 조바심이 나며 시린 손을 비비며 초조해하는 마음을 진

정시킬 뿐이다. 믿거나 말거나, ‘천지(天池)를 보지 못한 사람이 천지(天地)’ 라지만 아무려면 어떻겠는가?

드디어 천문봉(天文峰) 정상, 천지대! 천지!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탁 트인 천지가 시야에 들어오면서 발이 뚱뚱 뭉여버렸다. 무릎을 꿇어야하나. 커다란 바위와 봉우리로 둘러싸여 움푹 파인 천지의 분화구, 화산활동으로 신비의 비경을 자아낸 석공의 솜씨인가? 대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움에 갑자기 ‘와~’ 하는 탄성과 환호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백두산 천문봉에 올랐지만 흰 뱃머리는 어디에 있는가? 천지가 발아래 있지만 여기 또 천지가 있다. 거울은 아내에게 두고 왔는데 하늘 아래 매달린 저 거울은 또 무엇인가?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가 가로 놓였지만 천지가 하늘이고 천지가 땅이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첫 선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감히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니고 앉아있는 너
태초의 모습 그대로 간직한 신성하고 외경스러운 자태
동해 쪽빛보다 더 푸른 에메랄드 빛 칼데라호
선녀들만 내려와 목욕을 한다.

햇빛에 반사되어 은빛 물결 눈부시게 반짝이며
그 깊이를 보여 주지 않는 너
16폭 병풍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든 새색시의 모습인가?

저 멀리 장군봉, 다시 오른쪽으로 백운봉
고고한 자태를 물속에 드리우고 그림자로 반사되어 다시 보여주는 명경대
숨털 같은 구름 속으로 무심코 흘러가는 섬들 바라보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하고 그대로 망부석이 되어 17봉우리를 만들어낸다.

지척(咫尺)에 있는 백두의 최고봉을 눈앞에 두고 남의 땅에서만 바라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저려온다. 저 뭉게구름은 자유롭게 흘러들어 가는데 우린 언제쯤 장군봉을 마주하며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을까? 금강산도 오르는데 백두라고 못 오를까?

물이란 물은 다 내 물이고, 산이란 산은
다 내 산인데
(.....)
흙이란 흙은 다 내 흙이고, 풀이란 풀은
다 내 풀인데
내 땅에서 내 발바닥으로 저 백두산에 내 못 가네 <양성우, 백두산>
어느 시인의 외침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백두의 변덕스런 날씨의 이미 예상을 했지만 순식간에 먹구름이 일고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이내 해를 집어 삼켜버린다. 순간 슬픈 역사가 생각난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선인 백두산정계비는 이미 소실된 지 오래다. 간도협약으로 청나라에 영유권을 넘겨준 이래, 중국은 백두산 공정으로 장백산을 중화 10대 명산중 하나로 지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마음 급한 일 아닌가. 또한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우리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을 중국은 만주족의 왕지로 정하고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탄생신화로 왜곡하고 있다. 최남선은 <조선의 산수>에서 “조선 사람이 백두산 속에 있음을 잊어버린 것은 물속의 고기가 물을 잊어버린 것 같다.” 고 했다. 백두인가 장백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민족분단의 아픔과 설움을 극복하고 어서 통일이 되어 백두산이 우리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왔으면 한다. 오천년의 역사를 지탱해준 한반도의 등뼈인 백두대간의 시발점, 발아래 저 멀리 금강산과 태백산, 한라산을 굽어보며 종주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08

호류지에 활짝 핀 금당벽화

호류지에 활짝 핀 금당벽화

2010.02.27 09:23

호류지에 활짝 핀 금당벽화

간사이 공항에서 1시간 정도 버스로 달려 나라현으로 들어갔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적하고 좁은 시골길 양옆으로 아직 채 수확하지 못한 무와 배추포기가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 뒤로 일본의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2층 기와집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 열을 지어 서있다. 나라(奈良)는 1,300년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된 고도이며 불교의 중심지이다.

백제의 숨결과 혼이 서려 있다는 도다이지(東大寺)를 뒤로 하고 일본 불교문화의 보고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담징스님의 금당벽화가 있다는 호류지(法隆寺)를 찾았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서늘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더니 갑자기 찬바람이 귀밑을 스치며 겨드랑이를 타고 이내 가슴으로 밀고 들어온다. 온몸이 오돌오돌 떨리는 순간 가느다란 빗줄기가 머리위로 떨어지더니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며 어깨를 적신다. 일본은 비가 자주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갑작스럽게 만난 비가 달갑지는 않았다. 일정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가이드의 말이 조금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혹 그렇게도 기다렸던 금당벽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신의 사색이 아니라면 부처님이 금당벽화를 조금이라도 더 감추고 싶은 속셈일까? 아니면 담징스님이 오늘도 화필을 잡지 못한 채 위기에 처한 조국을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번뇌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알리려는 것일까?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금당벽화를 반드시 보아야한다는 일념으로 줄 곳 달음박질한 나를 잠시 세우며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있었다.

남문을 지나 중문을 거쳐 서원가람으로 들어가 회랑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정면으로 31.5미터 높이의 오층 목탑과 성스러운 금당이 위풍당당한 위용을 드러내며 빗줄기 사이로 고색창연한 자태를 한껏 뽐내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답게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숙연한 느낌마저 들게 했다. 처음으로 나를 반기는 호류지의 건축물이기에 인사라도 하듯이 멋진 장면을 담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정신없이 눌러댔다. 일본인들이 호류지를 찾는 것은 8등신 미녀의 우아한 구다라관음상(백제관음)을 보기 위해서라지만 난 신비스러운 금당벽화를 보기 위해 일정을 바꾸어서 도다이지 대신 이곳을 선택했다.

드디어 오층탑을 지나 본존이 안치된 금당으로 들어섰다. 금당 중앙에 금동 석가삼존상과 좌우로 아미타여래상, 약사여래상이 모셔져 있지만 힐끗 쳐다보며 벽화를 찾아 줄달음쳤다. 그 중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 아미타여래상과 좌우의 협시보살의 모습이 그려진 ‘아미타정토도’였다. 숨을 고르며 부드럽고 살아 숨 쉬는 듯한 선의 아름다움에 도취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다만 눈에 익숙한 통인의 손모양이 여기에도 있구나하는 생각에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뿐이다. 벽화가 선명하지 못하여 담징의 진가를 온전하게 보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불법을 이곳에 전하고 싶다는 담징의 염원이 담겨 있는듯하여 그나마 위안으로 삼으려 한다. 그렇지만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희미한 벽화는 내 가슴속에 내려앉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정한숙의 소설 ‘금당벽화’가 문득 떠오른다. 벽화를 그리기로 약속한지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고뇌에 가득 찬 담징은 고구려의 승전보를 주지스님에게 전해 들고 비로소 붓을 잡는다.

“무학같이 벽 앞에 나가는가하면 용의 초리같이 벽면을 스쳤다”

.....

“거침없는 선이여,
부드러운 색조여,
범할 수 없는 관음상이여”

.....

나는 왜 이런 진면목을 볼 수가 없는 것일까? 불심이 부족한 것이겠지 하며 자책한다. 기대와는 달리 벽찬 감동을 느낄 수 없음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만 하다. 벽화는 1949년에 소실되어 현재는 모조벽화가 걸려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귓전에 맴돌 뿐이다.

그런데 담징의 흔적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담징과 관련된 금당벽화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한국어판 ‘법륜사약연기’에도 마찬가지다. 담징의 이름은 더더욱 찾을 수가 없었다. 담징의 금당벽화는 우리의 역사와 소설, 영혼 속에서만 남아 있고 호류지 어느 구석에도 그 실체를 찾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만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억누르고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2010.1.25. 나라현

09

이비야온다

이비야 온다

올해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庚戌國恥)’ 100주년이다.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은 새해 첫 달 일본을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에서 벗어나 일본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어 기대가 앞선다. 역사가 남긴 양국은 여전히지만 최근에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보상 문제 등의 갈등 요인이 아직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가 베스트셀러 1, 2위를 오르내리고 일본에서는 한류 붐이 일고 있다. 이제야 말로 한일 과거사를 청산하고 양국 간의 새로운 미래의 동반자로서 국제관계를 설정할 때라고 본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따뜻하고 오래된 친구 같은 이웃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교토(京都)는 2차 세계대전 중에도 피해를 면한 천년의 고도이다. 지금도 거리, 전통가옥, 절이나 신사 등이 예전의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며 개발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제한되어 잘 보존된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길가의 전봇대도 옛 모습 그대로 서있다. 특히 이곳의 전통 기와집들을 보면 경주에 와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한옥의 풍경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담배꽂초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깨끗한 거리의 모습과 수많은 소형차의 물결들은 다시 한 번 일본의 국민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거리의 자전거행렬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박하고 여유로운 모습이다. 동호인들끼리 형형색색의 줄바지를 입고 비싼 자전거를 타고 과시하듯 줄지어 다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버스의 자그마한 유리창을 통해 교토의 풍경을 스케치하면서 일본에 대해 새록새록 깨닫는 사이에 벌써 히가시쿠(東區)의 교토박물관 옆에 있는 미미즈카(귀무덤 · 耳塚/코무덤 · 鼻塚)에 도착했다. 귀무덤의 참배는 임진 · 정유재란의 원흉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저지른 만행을 직접 보고 역사의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토요쿠니(豊國) 신사 앞의 오른쪽 주택가 둔덕에 자리잡고 있는 작고 초라한 무덤이 말없이 숨을 죽이고 있다. 화려하고 웅장한 토요쿠니 신사가 아래를 굽어보며 하루 종일 죄인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형국이 영 찜찜하고 꺼림칙스럽다. 신사의 거대한 도리이를 힐끔 곁눈질하며 귀무덤으로 향했지만 철문으로 된 입구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개별방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철책 너머로 쓸쓸한 봉분이 보이고 그 위로 육중한 돌비석(오륜탑)이 세워져 있다. 우리나라의 무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무덤이다. 혹시나 해서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이총위의 석탑은 원혼의 기를 짓누르고자 무덤위에 세웠다” 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코와 귀를 잘라 소금에 절인 것도 부족해 돌을 무덤에 올려놓아 우리 조상의 원혼을 또 한 번 피눈물 나게 만들다니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진다. 철책 앞에서 참배를 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해 묵념을 올렸다. 예전에 에도로 가는 조선통신사들도 이곳에 들러 밤새 통곡을 하였다고 하니 슬픈 역사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이총은 임진 · 정유재란 당시 왜군이 자신들의 전공을 본국에 입증하고 과시하기 위해 12여만 명의 코와 귀를 잘라 소금에 절여 가져가 토요쿠니 신사 앞에 무덤을 만들어 묻은 것이라 한다. 이때 전장에서 싸우다 죽은 군인뿐만 아니라 양민들과 간난 아이들까지 죽여 코를 베고 귀를 자라 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를 생각하니 적개심이 끓어오른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울면 ‘이비야(耳鼻) 온다’ 라고 외치면 울음을 툇 그쳤다. 지금 생각하면 이비야는 코 베어가고 귀 떼어가는 왜군들을 의미하는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말인 것이다. 이런 뜻인 줄도 모르고 이비야를 불러냈지만 치욕스럽고 처절한 역사의 소리임을 알고 나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난 12월 한일문화교류의 밤(서울가든호텔) 문화행사에 강서문인협회 편집위원장 자격으로 초청을 받고 문인들과 함께 참석을 했을 때 삼중스님을 만나 이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다. 삼중스님과 사천문화원은 영혼 환국운동을 벌인 끝에 1992년 이충의 흠을 향아리에 담아 와서 이역만리에서 떠도는 원혼을 달래고자 경남 사천시 조명군총(朝明軍塚) 옆에 제를 지내고 안치하였다고 한다. 삼중스님은 천정을 올려다보며 진한 한숨을 내쉬면서 “왜놈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합의만 있다면 귀무덤 전체를 이장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며 목청을 높이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일이 기억난다. 이제 타국에서 수백 년간 울부짖으며 구천을 떠돌던 조선의 영혼들이 영구히 귀국하여 고향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할 차례인 것 같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근처에 사시는 시미즈시로(96세)라는 할아버지께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니 머리 숙여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 교토에 가기 전에는 토요쿠니 신사를 방문해 보려고 했었는데 귀무덤을 보는 순간 그의 잔학성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아직도 이곳을 찾는 참배객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하며 귀가 멍해짐을 어찌할 수가 없다.

2010.1.26.교토

10

임시정부 발자취를 찾아서

임시정부 발자취를 찾아서

2010.02.12 09:31

중국속의 작은 한국

임시정부 발자취를 찾아서

중국은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개최하여 13억 중국 대륙의 100년만의 꿈을 이루고 세계 속의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데 이어 2010년에는 상하이(上海) 엑스포(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또 한 번 중화민족의 부흥을 세계에 알리려 하고 있다. 중국 속담에 “100년 역사를 보려면 상하이로, 1000년을 보려면 베이징으로, 3000년을 보려면 시안으로, 5000년을 보려면 허난을 가봐야 한다 (一百年歷史看上海, 一千年歷史看北京, 三千年歷史看西安, 五千年歷史看河南)” 는 말이 있다.

중국 역사문화 1차 탐방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상해를 선정하여 아시아나 항공에 몸을 실었다. 상해는 한국인에게는 임시정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각별한 도시이다. 푸둥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서자 황푸강(黃浦江)이 흐르는 옆으로 아시아 최고의 타워 동방명주(468m)가 제일 먼저 반겨준다. 비슷한 디자인의 건물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상해시의 방침에 따라 현대식 초고층 마천루들은 마치 세계 건축 박람회라도 열듯이 저마다 다양한 건축양식을 뽐내고 있다. 중국의 맨하탄, 동방의 파리란 별칭에 걸맞게 기발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건물과 마천루가 하늘을 찌를 듯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기괴한 모습의 빌딩들은 상해 스카이라인을 점령하며 외탄(外灘)과 황푸강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상해만의 상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해에서 사람 구경하고 북경에서 벽돌 본다’ 고 한다. 거리에는 자동차의 홍수와 온 중국인들을 다 모아 놓은 듯한 사람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고 있고 출근길에 자전거와 인력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서울과는 달라 다소 이채로운 풍경이다.

	
□ 동방명주타워에서 바라본 초고층 빌딩	□ 마당로에 있는 임시정부 유적지 현판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마당로(馬當路)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았다. 낮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좁은 골목길 사이로 3층 벽돌집이 보이고 임시정부청사임을 알 수 있는 현판 안내문이 눈에 띈다.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서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초라한 작은 청사와 열악한 주변 환경을 대하니 실망스러움과 함께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른다. 골목 입구와 주변건물은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지 온통 공사판이다. 벽돌을 깨는 인부들과 철근 구조물이 모래와 뒤섞여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 하마터면 청사 입구를 그냥 지나쳐 버릴 뻔하였다.

좋지 못한 첫인상과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런 와중에 현지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다. 마음을 다 잡으며 실내화로 갈아 신고 1층에서 짧게 비디오 시청을 하면서 관리인의 설명을 들었다. 이 건물도 상해시의 도심재개발 계획에 따라 전면 철거될 위기에 놓였는데 한국과 중국의 우호 상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원형대로 보존된다고 한다.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곳은 1926년부터 윤봉길의사(義士)의 상해 의거(홍구공원 虹口公園)가 있었던 1932년 직후까지 청사로 사용했던 곳이다. 당시 쓰였던 가구, 서적, 자료, 사진 등이 2층 백범(白凡) 김구선생 집무실과 3층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옷깃을 여미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며 청사 안을 관람 하였다. 그러나 해외 독립운동의 본거지로서 광복군 창설 등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는 임시정부 청사의 규모가 너무 작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올해는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哈爾濱) 역에서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지 100년이 되는 해다. 안 의사 의거 100주년과 순국 100주년이 이어지는 뜻 깊은 시절을 맞아 안중근 기념관 건립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중이다. 건립비용은 정부에서 130억을 지원하고 국민성금으로 20억 정도를 충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 중국인이 “안 의사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나아가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념해야 할 영웅” 이라며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한다. 존경스럽고 마음 훈훈한 이야기이며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임시정부청사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며 기금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벽돌 한 장 놓고 기와 한 장 올린다는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동참해 나간다면 뜻 깊은 사업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현장에 대한 보존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인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 상하이에서 2009.6

11

루저녀 오호통재라!

루저녀, 오호통재라!

얼마 전 모 방송국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키가 180센티미터가 되지 않는 남자는 루저(loser)다”라는 발언을 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이 외모지상주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조장한다며 시청자와 네티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게시판에 연일 대다수의 남성들이 그 여대생에 대한 비난과 성토의 댓글을 달고 심지어는 그 해당 학교 홈페이지의 방명록과 교수의 이메일을 통해 제적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출연자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웃자고 한 이야기였는데 이렇게까지 이슈화되고 일파만파로 퍼져 확대 재생산될 줄 몰랐다면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숨어 지낸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공중파를 통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적 특징을 비하한 발언은 부적절하고 분명 잘못된 일이다. 물론 그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제작진 역시 책임이 크다. 그러나 작은 키의 남성을 폄하했다는 ‘루저’ 발언의 파장이 혹 양성평등의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

나는 평생을 키가 작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을 상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수없이 당해서 이제는 그런 말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남성이 주로 가해자라는 점이다. 특히 군대에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숫다리’, ‘짜리몽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 나의 신체를 대상으로 조롱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토해 냈다. 심지어는 고참병들이 “야! 김일병 너 어떻게 그 키에 현역으로 입대 했어”.

“누구 백이야” 하며 하루아침에 나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며 ‘루저’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때의 그 기분을 니네들이 알아?”

이제 와서 대다수의 남성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니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작은 키의 친구나 동료들을 놀릴 때는 즐겁고 재미가 있었는데, 날씬한 몸매를 지닌 매력적인 여대생이 그런 말을 하니까 모두가 원통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니 우습지 않은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평생을 속앓이를 하며 참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 그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언론과 방송은 특하면 ‘얼짱’이니 ‘몸짱’이니 또는 ‘꿀벅지’를 들먹이면서 선정적으로 기사화하고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하면서 독자와 시청자를 우롱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 TV를 시청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벌게지게 만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개그프로그램에서는 작은 키와 뚱뚱한 몸매를 지닌 여성을 희화화 하며 시청자들의 억지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얼굴에 악성 코드가 걸렸어’, ‘얼굴이 어떻게 그따위로 생겼습니까’, ‘앤 성형하면서 사람 됐고...’ 등 외모를 소재로 삼아 웃음을 조장하는 것은 심각한 인격 모독이 아닐 수 없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격이나 능력보다는 경제력이나 늘씬하게 잘 빠진 미모의 여성을 더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모두가 인격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더 이상 숨길 일도 아니다.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업인 스텐디스를 채용할 때 키와 외모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연예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남녀를 불문하고 키와 외모는 우리 사회에서 이성을 만나는 조건이며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또한 20~30대 여성들 중 80%가 성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사랑과 조건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역시 조건을 선택했다. 따라서 성형욕구로부터 벗어날 미혼 여성들이 몇이나 될까? 모두가 ‘나’ 라는 정체성과 개성을 내던지고 연예인과 비슷한 외모 기준을 내 세워 누구 코처럼, 누구 눈처럼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니 외모지상주의가 절정에 달한 것 아닌가 싶다. 심지어 “백화점 여성고객의 대부분은 눈, 코 성형은 다했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성형이 현대 여성들의 ‘아이콘’ 이 되어 버렸다. 개성적이고 매력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얼굴은 눈 씻고 찾아 볼 수 없고 틀에 박힌 전형화 된 미인도의 모습만 볼 뿐이다.

우리 사회가 외양으로 남을 평가하고 그 모습에 반하고 모방할 때, 또 이성을 선택할 때 능력이나 성격보다 키가 좀 더 크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상대를 계속 원하고 찾는 이상, 외모지상주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인 것처럼 떠들어 댈 필요도 없고 억울하게 느낄 일도 아니다. 일찍이 효경에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불감훼상(不敢毀傷)이 효지시야(孝之始也)니라” 했다. 현대적 의미로 판단할 때 타고난 외모를 성형하는 것쯤은 불효가 아니라고 해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생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일어난 ‘루저녀’ 사건은 누구의 탓도 아니며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인간의 인격과 지성, 내면의 성격보다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요소를 중시하고 선호한 이상 그 책임은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다. 언론과 방송도 더 이상 외모와 스펙(spec)이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일깨워 주었으면 한다. 새로운 미디어법을 제정하여 막말 방송, 인신공격 등이 남발하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하고 대중매체의 올바른 문화를 선도해 인간의 행복과 꿈을 표현하고 실현해 줄 수 있는 매체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외모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살 권리와 행복을 누릴 의무가 있는 것이다. ‘루저’ 가 아닌 우리 모두의 ‘위너’ 가 되는 세상은 볼 수 있을까? <2009.12>

12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땅집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땅집

2010.01.07 19:04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땅집

-윤동주의 하늘과 땅과 별을 기리는 집-

강서문단 3호(2009.12.30)

푸른솔문학 6호(2010.3.26)

윤동주 시인은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간 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국민 애송시가 되었으며 김소월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뽑혔다. 그리고 그의 시편들은 우리시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이 되었다.

평소에 윤동주를 사랑하고 흠모했던 조병수 박사(건축가)가 그의 문학과 삶을 기리고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의 생활을 형상화하여 '땅집'을 건축했다. 땅 집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의 산자락 '꿈이 있는 교회'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이정표도 없는 길을 따라 산비탈을 올라가면 언덕 위에 땅속으로 들어간 작은 집이 내려다보이며 그 위로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사각형 별장이 있다.

지붕은 보이지 않고 네모난 콘크리트 상자 같은 것이 발아래 놓여 있다. 가로 세로 7M의 마당과 6평의 방이 전부이며 지붕은 지표와 맞닿아 있다. 마당 한 모퉁이에 우물을 설계했는데 여의치 않아 나중을 기약했다고 한다. 그 우물을 통하여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부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 마당을 가로 질러 토방을 거쳐야 한다. 낮고 좁은 방문을 열자 별집 같은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 겨우 1평씩 6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아담한 네모난 방은 흙벽과 나무로만 되어 있다. 여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한 인테리어나 가구는 볼 수 없고 그저 담백하고 순수한 공간만 보일 뿐이다. 네모는 단순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공간이며 땅집은 네모에서 시작한다고 조병수 박사는 설명한다. 바닥은 흙으로 잘 다져진 상태로 장판도 깔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아직도 흙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며 시골 토담집을 연상하게 한다. 맨발로 흙을 밟고 흙을 만지며 흙과 함께 사는 모습, 말 그대로 흙집인 셈이다. 1평의 방은 고요하고 따뜻하다. 뒤쪽으로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 약간의 빛이 스며들고 있다. 윤동주는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었지만 이 방은 순사가 찾아오면 창문을 통해 빠져 나갈 수 있게 설계했다고 귀띔해 준다.

이곳에서 하룻밤 묵으며 밤새 윤동주의 시집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차갑고 고통스러운 이국땅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시련을 견디어 내며 일제에 저항한 민족시인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좁은 독방 감옥에서 생체실험을 당했다는 의혹을 남긴 채 끝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영 이별을 하였다. 잠시 울컥하던 마음을 달래며 방을 나와 토방마루에 앉아 명상에 잠긴다.

아직도 땅속이라 정면은 3M 높이의 콘크리트 담장만이 나를 응시하고 있다. 담장 곳곳에는 소나무를 잘라 만든 둥근 나무 기둥이 박혀 있다. 세월이 흘러 저 기둥이 썩으면서 풀이 자라나면 콘크리트 담장은 친구가 생길 것이다. 인공적으로 화단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야생화를 키우겠다는 기발한 발상에 또 한 번 놀란다.

고개를 드니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직사각형 모양의 ‘하늘집’ 뿐이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하늘은 바람에 실려 영화관의 스크린 화면이 바뀌듯이 변화무쌍한 모양을 만들어 낸다. 네모난 스크린을 통해 자연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나와 자연만이 서로 응시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토방 마루에 앉아 한정된 시야를 통해 자연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느낄 뿐이다. 위에서 보면 땅 아래에 있지만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하늘만 보이기 때문에 ‘하늘집’ 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늘에 박혀있는 별들과 이야기 하고 싶다. 큰별, 작은별, 무리별과 친구가 되어 창가에 내려오면 하늘의 세계를 듣고 땅의 세계를 전해주고 싶다. 윤동주는 ‘별 헤는 밤’ 에서 이렇게 별을 노래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타향에서 어머니와 고향의 모든 것을 그리워하며 별을 하나씩 세며 노래했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되어 총총히 떠돌고 있다.

김춘수 시의 ‘꽃’ 에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듯이 나도 땅집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땅집은 윤동주의 영혼이 서려 있는 집이며 자연 친화적인 조병수의 시적인 건축물이다. “절박했던 시대에 윤동주의 시가 항상 미래를 향하여 희망적인 것처럼 땅 집은 또 이 시대의 삶을 성찰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집이 되었으면 한다.”

강서문협 회원과 조병수연구소 팀원과의 시와 산문 낭송회를 마치고 별장으로 이동하여 준비된 만찬을 즐겼다. 와인과 곁들인 스테이크는 정말 최고의 맛이였다. 조병수 박사의 건축 이야기로 시간 간 줄 모르고 있었다. 이외수 소설가의 화천 집과 집필실을 설계했고 내년쯤에는 작품전시 공간도 완성한다고 한다. 이집은 대학 때부터 구상한 것을 이제야 자신의 스타일로 구현했다고 한다. 네모난 형태의 집은 가운데 연못이 있고 지붕은 하늘로 뺨 뚫려 있다. 밖에서 맞았던 빗방울이 연못으로 떨어진다. 깊은 산속 계곡에 앉아서 비를 맞는 그런 기분이다. 형광 불빛에 반사되어 시원하게 내리는 빗방울을 보니 정말 장관이였다. 이런 광경을 방안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니 놀라움과 함께 또 한 번 조병수 박사의 건축미를 엿볼 수가 있었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김유정 생가에서 소낙비를 맞아본 경험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 2009. 12. 10. 경기도 양평 윤동주 땅집에서

13

동화같은 세상

동화 같은 세상

아이들과 어른신들의 천국

영신의 아침 3호(2009.10)

방화역(5호선)에서 근린공원 쪽으로 길을 건다 보면 길쭉 도서관 대각선 맞은편 오피앙 상가 1층에 자리 잡은 <동화마을 잔칫날>이 눈에 들어온다. 국수를 먹으로 온 손님들이 12평 남짓한 가게에 가득 차서 길가로 길게 줄을 선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미 맛 집으로 입소문이 나 동네 주민들은 물론 한강을 다리는 자전거 동호회와 개화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도 많이 찾아 온다. 하루 평균 500여명이 찾는 이곳의 맛의 비결은 뭘까? 그것은 어른신들의 정성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다. 가족들과 함께 국수를 후루룩~ 먹고 있는 모습에서 동화 같은 세상을 본 것이다. 또한 국수와 반찬이 무한 리필 되는 넉넉한 인심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선사하고 있다.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도 산지에서 직송해 와서 노인연합회 소속 봉사 단체에서 순수 국산 재료만을 엄선하여 매주 60포기 이상씩 직접 정성스럽게 담아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게 한다. 가게 운영도 자원봉사 20여명과 영신교회 봉사자 10여명이 교대로 홀 서빙과 주방 일을 맡아서 업무를 분담하고 지역 공동체 식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수익금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권상자 공동대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와 봉사를 하면서 힘이 들지만 동네 어른신과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맛있게 국수를 먹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는 믿음을 선교 한다.

국수를 판매한 수익금은 지역사회 복지에 사용하기 위한 만큼 시설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운영비와 노인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우선 **동화마을 실버 순찰대**를 구성(총20명)하여 교육을 마쳤으며 9월부터 복지는 순찰대를 운영한다. 멋있는 군악대 의상으로 갖춰 입고 방화동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놀이터와 공원 등지를 순찰하면서 어린이들의 납치, 유괴, 성범죄를 보호하고 학교폭력과 비행 예방하고 선도하게 된다.

또한 **어르신 전문 실버 북시터(Book-Sitter)**를 모집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에 길쭉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동화구연과 독서 활동도 도와 줄 계획이다.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길쭉 도서관 김동운 관장은 이런 사업을 통해 소외 계층을 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움과 꿈을 키워주겠다. 앞으로 노인이 춤추고 어린이가 꿈꾸며 장애우가 신나는 행복하고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 열정과 비전이 보이는 대목이다.

인터뷰하는 중간에 노인복지와 아이들의 꿈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제3회 강서 어린이 동화 축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어른신과 어린이 복지를 위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가 우리 동네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2009.9.13.일.길쭉 어린이 도서관에서



길꽃동화마을 잔치날 국수집 전경

14

겸재 정선이 바라본 개화사

겸재 정선이 바라본 개화사

2011.10.12 15:00

[역사문화 탐방 시리즈]

겸재 정선이 바라본 개화사

개화산 정상에서 '영신의 아침'을 맞이하다

김동기

영신교회는 개화산의 기점이다. 방원중학교를 지나 영신교회를 돌아가면 언덕길로 개화산 산책로가 펼쳐진다. 모든 등산객들이나 개화산을 찾는 사람들은 영신교회를 거쳐 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건너편 근린공원에서 시작하는 등산로도 있지만 역시 주 산책로는 영신교회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말이다.

좁은 산책로는 개화산 정상(해발 약 128미터)으로 이어져 다시 몇 갈래로 나뉘어 흩어진다. 정상에 오르면 군부대가 왼쪽으로, 약사사가 오른쪽으로 위치하고 정면으로 일산과 상암 월드컵경기장, 북한산 등 한 폭의 수채화를 감상하듯 조망할 수 있고 건너편 행주산성이 웅장한 자태로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의 승전보 소식을 전해준다. 발아래로 한강이 도도하게 흐르면서 붉은 빛을 발하는 방화대교를 맴돌며 옛 이야기를 전해준다. ‘양천읍지’에 의하면 개화산의 원래 이름은 주룡산(駐龍山)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신라 때에 주룡(駐龍)선생이라는 한 도인이 이 산에 살면서 매년 9월 9일에 동자 두세 명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술을 마시며 '구일용산음'(九日龍山飲, 구구절에 용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다)이라 하였다 하여 주룡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선생이 돌아간 후에 그 자리에서 이상한 꽃 한 송이(연꽃)가 피어났고 그 이후부터는 개화산이라 일컬어졌다고 한다. 선생이 살던 곳에 절이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절 이름을 개화사(고려 공민왕 2년 1353년)라 하였으나, 개화사에 있는 좋은 약수 때문인지 조선 말기(순조이후부터)쯤에 약사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산 정상에는 조선조에 사용했던 봉화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다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1676~1759)은 양천현감 재임 시절 ‘개화사’ (경교명승첩, 양천8경첩에 수록)라는 제목으로 한양 진경의 절경을 그렸다. 이 작품은 영조16년(1740)에 개화사가 중수 된지 3년 후쯤에 개화산의 풍경을 그렸다고 한다. 현재의 절의 모양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그림에 나오는 개화사(開花寺)가 지금의 약사사(藥師寺)이다. 주룡산 중턱에 법당과 소나무, 그 아래 3층 석탑과 별채가 선명하게 보인다. 절 아래로는 버드나무와 층층의 다랑이 논이 산골짜기를 따라 이어져 있고 산자락 아래로는 쌍뿔단배가 유유히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이다. 개화산 아래 범머리 근방 한강에 배를 띄워놓고 배에서 그린 그림으로 개화산 경내와 주변 풍광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겸재가 그린 ‘개화사’에 보이는 삼층석탑이 지금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탑(높이 4미터의 화강암석탑)은 원래 약사사 석불 입상이 모셔져 있던 금당 바로 앞에 서 있던 삼층석탑으로 약사사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한다. 개화산 중턱에 있는 이 탑은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서 있는데, 그 모습이 투박한 듯 하면서도 날렵하다. 이 석탑은 일층 기단과 삼층 탑신으로 구성된 독특한 형식이다. 석탑의 받침부에는 사각형 지대석 위에 큼직한 사각형 기단과 판석으로 된 갑석이 놓여 있다. 다소 육중한 기단 위에는 갖기둥이 있는 1층 탑신과 큼직하고 가파른 지붕돌이 놓여 있고, 다시 2,3층 탑신과 지붕돌이 올려 있다. 탑의 몸체부는 투박한

받침부에 비해서 날렵한 모양이다. 이 석탑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의 희귀한 석탑의 예로 그 가치가 크다.

그 외 우리 동네에 조상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역사 문화유산으로 개화지구 전투 충혼위령비(미타사), 개화산 봉수대(성화대)터, 약사사 석불(유형문화재 제40호), 풍산심씨 묘역(유형문화재 제77호), 여우골 전설 등이 있다. 또한 느티공원의 은행나무(수령 400년)와 느티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쉼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영신의 아침 제7호/2011.9 / 김동기(한서고 국어교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강서문단편집위원장)

15

스승의기도

스승의 기도

2010.02.07 10:39

스승의 기도

주여!

미명의 새벽 등갓길

그저 책과 씨름하는 아이들에게

하루를 지탱해 줄 아침밥을 거르지 않게 하시고

교문아래 언덕길에도

지친 몸의 허리를 일으켜

활기차고 우렁차게 인사하게 하소서

어김없는 아침 조례시간도

흐린 눈동자가 아니라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를 간직하게 하여서

선생님과 마음을 다해 교감하게 하시고

잠시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려 입시경쟁으로 생겼을지 모를 상처를

변치 않은 우정과 오래 기억될 벗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풀어주소서

촉수를 높여야 할 수업시간이면

밤에 지치고 지쳐서 매우 졸리고 힘들어도

하나라도 더 탐구하게 하시고

일생을 살아갈 양식이 되도록 채워 주소서

텅 빈 위속을 세포 가득 체감하며 기다리던 점심시간

앞줄에 서기 위해 허겁지겁 뛰지 않고

따뜻한 밥과 국으로 정을 나누게 하소서

모든 일과가 끝난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도

무지의 깨달음을 일깨워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모르던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을 선물하소서

늦은 밤, 온갖 책들이 도열한 도서관에
불을 환히 비춰 방향하는 자아를 붙잡아 주시고
꿈과 희망을 가슴 가득 안겨주셔서
생의 나침판을 길게 세워 바로 잡게 하소서

때로는 달을 보며 때로는 별을 보며 돌아가는 하룻길
지친 육신 가다듬어 관절에 더욱 힘을 주시고
둥근달을 가득 품어 그 품에 안기게 하시어
늘 성찰함으로 인도 하소서

주여!
엄동설한을 이겨낸 새봄의 새순처럼
척박한 입시 환경에서 경쟁을 먼저 배우며 자란 아이들에게
내면 깊이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워
꿈을 이루게 하소서

한서교육. 2010. 제26호

16

운수 좋은 날 / 김동기

운수 좋은 날

삼 년 만의 봄나들이
아내의 체크 무늬 숄더 백
장롱 속 남은 가방들이
너, 오늘 간택 받았구나
눈짓하네

함박웃음 숨긴 채
개나리, 벚꽃과 도란도란
속살거리며
세상구경 정신없네

하필 작달비가 시샘하여
물에 빠진 생쥐꼴!
귀가 후 장롱 속 친구들에게
오늘 운수 사납다

* 작달비 : 장대비의 일종, 굵고 거세게 한동안 퍼붓는 비

부제 : 〈아내의 가방〉

시작노트 : 가방을 의인화하여 반어적 발상으로 일상적인 시를 씁니다

17

독을 차고 - 김영랑

독을 차고 - 김영랑

2011.05.09 09:25

독(毒)을 차고 - 김영랑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어도 머지 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문장 10호(1939년)-

▶ 『국어 선생님의 시 배달』 해설 - 김동기

한국현대시가 탄생한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는 학생들에게 어렵다. 학교시험과 수능준비로 인해서 시는 골치 아픈 존재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것은 비유, 이것은 상징, 운운하며 도식적인 분석으로 밀줄 그으며 시를 파편화시킨다. 결국 시를 토막 내서 죽이는 것이다.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 이해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시는 자꾸 멀어지고 도망간다.

죽은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를 접하며 시와 친해지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시야! 수필과 한바탕 놀아 보자〉라는 주제로 시와 산문 낭송 축제를 하고 있다. 지난여름 작고 문인의 애송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독을 차고〉를 낭송하고 있었다. 순간 빛바랜 낡은 필름에서 두근거리며 한 장의 사진이 불쑥 튀어 나왔다. 17년 전 비리재단 퇴진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민주화운동이 떠올랐다. 그때 교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많은 내적 갈등과 피눈물나는 고통에 휩싸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마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독을 차고〉를 수없이 낭독하며 암담한 학교현실에 대해 맞설 것을 다짐하면서 삭발투혼을 한 적이 있다. 내 마음에 한 번도 독을 품은 적이 없었지만 우리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재단과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의 슬픈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독을 안 차고 살아도’ 결국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허무한 일인데 ‘독을 차서 무엇 하느냐?’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고 동료들이 회유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 한다’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치열한 삶과 국어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비장한 결의를 하며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을 역으로 설득한 적이 있다.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이기듯이 영랑의 독기가 나를 깨우친 것이다. 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시인의 역사의식이 나의 암울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에는 소월, 남도에는 영랑’ 이라 일컬을 정도로 순수 서정시의 극치를 보여준 시인이 더 이상 일제 강점기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듯이 나도 이리나 승냥이 같은 맹수에게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는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독을 품고 부도덕한 비리재단 퇴진과 교육정상화 투쟁에 참여했던 것이다. 하마터면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줄 뻔했다.

영랑이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듯 나는 신학기가 되면 맑고 총총한 눈망울과 순수한 마음씨를 지닌 학생들을 기다린다. / 창비 국어 선생님의 시배달2 /한서고 김동기

18

미당 서정주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미당 서정주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10.02.08 09:56

미당 서정주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문학서울 14호(2011)

최근 일제의 식민 지배에 협력한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수록한 ‘친일인명사전’ 이 발간되어 미당 서정주(1915~2000)는 친일파 시인으로 분류, 수록되어 이제 피할 수 없는 친일파시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 와중에 동국대가 대학원 신입생 모집광고에서 서정주 시인을 광고 모델로 사용해 일부 학생들이 친일파시인을 광고로 사용했다고 항의하는 등 논란도 있었다.

서정주 시인에게는 친일파라는 꼬리표가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그의 작품 ‘헌시-반도학도 특별지원병 제군에게’ (1943년 매일신보)에서 “교복과 교모를 이냥 벗어버리고 …… 주어진 총칼을 손에 잡으라! / 적의 과녁위에 육탄을 던져라!” 고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에 뛰어들라고 독려했으며 또한 ‘송정 오장 송가(頌歌)’ (1944년 매일신보)에서도 뚜렷한 친일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공격대원

……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뜨리며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

21살 조선의 젊은 청년을 자살 특공대로 몰아가고 일본 천왕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권유하며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적이며 노골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죽음을 미화하는 서정주의 작품은 요즈음 사회문제로 부각된 자살예방은커녕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 동조자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그 책임은 당분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물론 1992년 당시에 논란이 일고 있던 자신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당시 문단에 소속된 많은 문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일부 친일 행각을 했다고 하지만 그의 문단적 지위로 볼 때 서정주만큼은 예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는 한국문학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서정주를 대상으로 올해 작고 10주기를 맞아 ‘미당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미당 재평가와 고택 복원을 한다고 한다. 우선 봉산산방(蓬蒜山房, 관악구 남현동 고택) 복원과 미당문학제 활성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미당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다소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만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당 서정주는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인이며 살아서 이미 '시의 정부(政府)', 시문학의 교주로 불린 그였다. 한국 시인협회는 한국현대시 100주년을 맞아 10대 시인을 선정했다. 한국 현대시 1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인은 누구일까? 나란히

김소월과 서정주가 1, 2위를 차지했다. 서정주는 그의 대표작 ‘동천’, ‘자화상’, ‘국화 옆에서’ 등에서 “민족 언어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국민을 대표하는 서정주 시인이지만 문단에서는 후학문인들에게 극단적인 찬사와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기도 하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현대시를 가르칠 때 고민이 많다. 서정주와 그의 작품을 빼놓고 시문학사를 논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기 때문이다. 대입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서 이미 ‘귀족도’, ‘외할머니의 뒤편 툇마루’가 출제되었고 모의고사에서도 ‘무등을 보며’, ‘추천사’, ‘춘향유문’, ‘견우의 노래’ 등이 꾸준히 출제 작품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7차 교육과정 개정 때 미당의 시는 친일행적으로 인해 중, 고교 국어교과서에서 사라졌지만 18종 문학교과서에서는 아직도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문학교과서에서도 ‘신부’라는 작품이 버젓이 실려 있고 문학시험 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생명파 시인을 언급할 때 청마 유치환과 더불어 서정주를 이야기해야 한다. 서정주 시인의 친일행위를 미워하고 그의 작품을 읽기 싫어도 우린 애써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신경림 시인은 “미당의 작품은 그의 친일 행태와 구별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들이 가르치고 시험에 출제되는 이상 그의 작품은 작품대로 인정하고 연구해야 한다. 친일파 시인으로 과오가 분명한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지용, 이육사 시인을 월북문인이라 하듯이 친일문인 서정주를 그렇게 부르면 될 일이다.

우리말을 풍부하고 빼어난 시어로 빚어낸 서정주의 문학적 성과와 일제 강점기 암흑기를 지킨 저항시인 윤동주와 이육사와는 달리 현실 인식이 부족하여 ‘이것은 하늘이 이 겨레에게 주는 팔자다’라고 노래한 친일행위의 과오와 변명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들려 주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정주 시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0. 1. 한서고 도서관에서

나에게 묻는다

블로그

들꽃따라 문학향기

<http://blog.daum.net/kdk99>

저자

김동기

발행일

2011.02.19 18:35:20

 블로그